

무애자재로 살다간 도인 진묵 스님의 일화 산과 마을 덮어

51 화신들의 도량 서방산 동서사

진묵(震默:1562~1633) 스님은 흔히 한국의 위인 전 시리즈에 원효 의상 서산 사명 스님과 함께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진묵 스님은 원효나 의상 스님처럼 학문적 유산을 남기지도 않았고 서산이나 사명처럼 구국의 기치를 들었거나 선맥(禪脈)을 전해 일가를 이루지도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진묵 스님이 오늘날까지 위인의 반열에서 당당하게 거론되는 것은 스님의 생애를 덮고 있는 많은 일화들 때문입니다. 초의(草衣) 스님의 <진묵조사유적고>나 범해 스님의 <동사열전> 등에 전하는 일화들은 인간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것들이어서 진묵 스님을 부처의 화신, 대자유인, 걸림 없는 수행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합니다.

진묵 스님이 남긴 일화에는 자유자재한 도인의 풍모와 더 없이 자비로운 불심,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 중생을 가르치려는 깊은 자비심이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들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진묵은 술을 좋아 하였으나 곡차(穀茶)라고 하면 마시고 술(酒)이라 하면 마시지 않았다. 어떤 스님이 술을 거르는데 "그대가 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술을 거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진묵은 아무 말 않고 물러갔다 다시 가서 "그대가 거르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으나 그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진묵이 되돌아갔다가 또 가서 물었으나 그가 끝내 "술을 거른다"는 대답을 되풀이 하자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다. 잠시 뒤 금강역사가 나타나 쇠뿔등이로 술 거르는 스님을 후려쳤다.

진묵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 시냇가에서 끓이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뭍을 구부려 끓는 술 안을 들여다보며 탄식했다. "잘 놀던 물고기들이 죄 없이 살아지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한 소년이 스님을 놀렸다. "스님께서 이 고깃국을 잡숫고 싶은 게로군요." "준다면 잘 먹지." "그럼 이 한 술을 다 드십시오." 스님은 술을 번쩍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소년들이 놀라 "부처님께서서는 살생을 금하였거늘 스님께서서는 고깃국을 드셨으니 어찌 참다운 스님이라 하겠소?" 진묵은 빙그레 웃으며 "물고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살리는 일은 내 하기에 달렸지" 하고는 아랫도리를 벗고 냇물을 등지고 앉아 설사를 했다. 그러자 수많은 물고기들이 진묵의 뒤로 쏠아져 나와 물속으로 들어갔다. 스님은 물고기들을 보며 한 마디 했다. "발랄한 물고기들이! 멀리 큰 강과 바다로 나가 다니는 살아지는 괴로움을 받지 말거라." 소년들이 놀라 그물을 거두고 돌아갔다.

한 번은 진묵이 시자를 부르더니 다짜고짜 소금을 가지고 봉서사 남쪽 부곡 골짜기로 가라고 했다. 시자가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고 물으니 스님은 가보



봉서사 부도밭에 부도들이 늘어서 있다.

면 저절로 알게 된다 고 대답했다. 시자가 소금을 가지고 골짜기로 내려가니 사냥꾼 두어 명이 노루고기를 회쳐 놓고 소금이 없어 먹지 못하고 있었다. 시자가 소금을 갖다 주자 그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진묵이 상운암에 머물 때의 일이다. 탁발승들이 먼 곳으로 탁발을 떠났다가 한 달 쯤 지나서 돌아와 보니 진묵의 얼굴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무릎 사이에 먼지가 수북 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낸 다음 이름을 아뢰고 배알하니 대사는 오히려 "왜 이리 일찍 왔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끈이끈대로 믿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뻥이야"하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하기도하고 글로 기록되기도 하면서 진묵 스님의 이야기는 전북지역에서 중요한 전승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진묵 스님의 이야기들이 사그라지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진묵 스님의 이름을 들여다봅니다. 천동 벽락 차



봉서사에 마련된 진묵 스님의 부도.

는 소리가 들리는 진(震)자와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고요의 묵(默)이라는 두 글자를 이름을 가진 것부터 남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지만, 극과 극을 완전히 통할만한 사람만이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묵 스님은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도 허물고 생과

(1636)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풍전등화로 몰아가는 외침(外侵)에 앞서 봉당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발발한 '정여립의 난(기축옥사)'도 스님이 살다간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원합니다. 진묵 스님은 17세기 조선사회의 난맥상을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영웅의 모

이 달덩이처럼 하얗게 될 때 진묵 스님도 다시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출 것입니다.

봄기운 아물거리는 마을을 지나 산길을 달려 봉서사로 갑니다.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봉서사 맞은편 언덕에 근래에 조성된 부도들이 즐비하고 그 뒷자리에 진묵 스님의 부도(진묵 유형문화재 제108호)가 서 있습니다. 부도는 하얗지 않습니다. 아직 진묵 스님이 환생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팔각 기단에 연화문을 약하게 새긴 두 단의 받침이 있고 둥그스름한 몸돌이 얹어졌습니다. 지붕돌은 경사가 급하고 보륜은 간소하게 장식되어 있어 화려한 맛은 없지만 단아한 부도의 모습이 무애 자재한 삶을 살았던 한 도인의 생애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부도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스님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입니다. 월해 스님은 진묵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현대인의 삶에 밝은 거울이 되길 염원하며 작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진묵 스님이 남긴 가르침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호남 법파의 연원을 간직한 봉서사는 진묵 스님과 범패라는 귀한 문화적 자산을 중생계로 회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월해 스님의 원력이 이루어지는 날 진묵 스님의 부도는 조금 더 하얗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자비심과 효심 수행의 모범 보인 '난세의 영웅' "부도 하얗게 되면 다시 온다" 전설 민중의 '희망'

사의 경계도 뛰어넘었으며 시간과 공간의 간격도 아랑곳 않았던 인물임을 일화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부터 '화신불'이라고 평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1597)이 있었고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

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김제 만경을 불거촌에서 태어날 때부터 3년간 풀들이 시들어 버리는 신이(神異)를 보였다는 진묵 스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중생들의 고단한 삶을 이루만지는 덕행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진묵 스님의 부도를 찾아 갑니다.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서방산 자락의 봉서사 앞 언덕에 진묵 스님의 부도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진묵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내 부도의 색깔이 전부 하얗게 변할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진묵 스님의 부도는 무슨 색깔이? 진묵 스님은 난세를 구하려 오는 마륜불의 화신이 아니라 극악으로 변한 이 중생계를 함께 노닐고 싶어 다시 오시길 바랍니다. 진묵 스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바로 민중들에게 더없는 희망입니다. 민중의 시대, 억압 받지 않는 시대를 맞아 온 백성들의 얼굴



봉서사 영각에 모셔진 진묵 스님의 진영과 어머니 상인 대성자 모상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 잠손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좌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나햇(주)은 철, 갈륨, 마그네슘, 셀레늄, 등 이온 광물질을 30여종 (특허특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 한의원, 산후조리원, 복지원, 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연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나햇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나햇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암중 위기 식음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정량특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김상목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마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